

# 일진 품고, 고부가 제품 확대... 롯데, 내실 다지기 총력전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적자에도 건설 5000억 대여금 조기 상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도 마무리 2차전지 소재·수소 사업 다각화 청정수소 유통... 매출 5조 목표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의 행보가 주목된다. 올해도 석화 시장의 업황 부진이 접착지지만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하고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마무리 지으며 내실을 다지는 도약을 예고했다.

롯데케미칼은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케미칼 매출액 전망치(연결기준)는 22조4843억원이다. 롯데케미칼 측은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신규설비 가동 등으로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건설의 5000억원 대여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롯데케미칼의 재무부력이 더욱 커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올해 수익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도 순조롭게 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의 완전 자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가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약 2

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안팎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동박 제조업체 2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조7668억원, 영업손실 915억원을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설 정기보수를 마쳤지만 가동률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환율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매출 감소까지 겪는 등 이종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다만 석화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황은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개발도상국 중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올해는 힘들더라도 2년 뒤부터는 업황 회복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2월까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배터리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로 수소·리사이클링 등 사업으로 다각화해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보급과 탄소저감 성장을 위한 수소 사업도 추진하고 중이다. 2030년까지 총 6조 원을 투입, 120만톤(t)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활용해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그룹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회의’ 참석한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CES에 참석해 수소, 배터리,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롯데케미칼의 미래 사업을 알렸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골칫덩이 해양폐기물,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LG화학-넛스파, ‘자원순환’ MOU 생태계 보호, 탄소배출 저감 두तो기

LG화학이 바다의 골칫거리인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든다.

LG화학은 12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자원 순환을 선도하는 업체 넛스파(NETSPA)와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화학은 24년 가동 예정인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열분해유 공장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페어망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료

/LG화학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넛스파가 해양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을 선별·가공해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이번 자원순환파트너십을 통

해 해양 생태계보호와 탄소배출 저감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국내 기준 연간 약 5만 톤이 발생하는 데, 폐기 비용으로 인해 수거가 원활하지 않고 또 수거되더라도 처치가 곤란해 방치되거나 주로 소각되어왔다.

양사는 이를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제품 대비 탄소도 3배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르노코리아 협력업체 “수출 지원책 마련해 달라”

정부 지원방안 촉구 호소문 발표 선사 수급·물류비 인상에 위기감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이 선사 수급과 물류비 인상에 따른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르노코리아자동차 협력업체를 대표하는 ‘르노코리아자동차협력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자동차 수출위기 국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정부와 부산시, 지역 경제계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 반도체 부품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많은 이슈를 극복해 왔지만 최근 배 이상 높아진 수출 물

류비로 어렵게 버텨온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3년 넘게 줄어들던 수출입 선사 수요가 코로나 엔데믹 과정에서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수출입 물량을 최우선으로 해상 수출입 물류 지원에 나선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초과 이익을 달성한 프랑스 선사의 운임을 동결하거나 할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기업 수출을 위한 선박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정부도 수출 물류 지원에는 나서고 있지만 현지차처럼 전용 선사를 갖추지 못한 르노코리아는 안정적인 수출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고운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운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부품 협력업체는 부산 수출에서 15~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총 11만 7020대의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당장 수출길이 막히면서 르노코리아 부산공장도 부품 협력업체들의 주요 수출 품목인 XM3의 유럽 물량이 유럽 공장으 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르노코리아 1차 협력업체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는 약 6만4000명에 달한다. 수출 물량 급감으로 최소 생산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들 협력업체의 경영악화와 함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고조되고 있다.

## 1.8배 빠른 PC용 고성능 SSD 출시

삼성전자, 업계 첫 5나노 공정 적용 전력효율 전작대비 최대 70% 향상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5나노 기술을 도입한 PC용 SSD를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PC용 고성능 NVMe SSD ‘PM9C1a’를 양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7세대 V낸드에 5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해 자체 설계한 신규 컨트롤러를 조합해 만들었다. 5나노 공정을 SSD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 효율은 전작보다 와트당 최대 70% 가량 향상됐다. 노트북 PC 절전모드에서는 소비전력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 읽기 속도는 1.6배, 연속 쓰기 속도는 1.8배 빠르다. PCIe 4.0을 지원한다.

보안 솔루션도 자랑거리다. 국제 보안 표준 기구인 TCG 암호아이디 기술 ‘DICE’ 표준으로 공급망 해킹 방지와 디바이스 인증, 펌웨어 변조 방지를 위



한 증명 기술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라인업을 M.2 규격으로 256GB와 512GB, 1TB 등 다양한 용량으로 지원해 글로벌 고객들과 함께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솔루션개발실장 송용호 부사장은 “PM9C1a는 고성능·저전력·보안성 등 PC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PC용 SSD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SK하이닉스, 하반기 ‘흑자’ 유력

임직원 성과급 100% 지급 결정 영업이익 흑자 기록시 지급 공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흑자가 확실 시된다.

SK하이닉스는 12일 임직원에 PI 100%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PI는 반기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최근 SK하이닉스는 하반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경우 하반기 P

I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 1조 6556억원을 기록했다.

사측이 PI 지급을 확정하면서 4분기 적자폭이 이를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는 다음달 2일 4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컨퍼런스콜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